

《향랑, 산유화로 지다》 깊이 읽기

사회적 모순 드러낸 충격적 사건,

“향랑은 어떻게 열녀가 되었나”

이기대



조구상의 《화랑의 열도》, 향랑의 자살장면을 판각한 것이다.

경북 구미시 형곡동 산21번지에는 ‘열녀향랑지묘烈女香娘之墓’라 새겨진 비석과 무덤이 있다. 이 무덤의 주인인 향랑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열녀로 추앙받던 인물인데, 지금까지도 매년 음력 9월 6일에 그녀를 추모하기 위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그러나 《향랑, 산유화로 지다》의 저자인 정창권은 향랑이 열녀가 아니라고 역설한다. 오히려 향랑은 당시 사회의 피해자라며, 열녀라는 이름이 지닌 이중성으로부터 그녀를 분리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이 역설 속에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향랑은 경북 선산의

서민층 여성으로 자기감정에 솔직한,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다만 그녀의 삶은 어려서부터 고단했는데,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슬하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7세 되던 해에 같은 마을에 살던 14세의 칠봉에게 출가한다. 그러나 남편 칠봉은 외도와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향랑은 혼인한 지 3년 만에 쫓겨나듯이 친정으로 돌아와야 했다. 친정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향랑의 고달픈 생활은 마찬가지였는데, 어려운 가정형편과 계속된 개가 권유 때문이었다. 결국 향랑은 낙동강의 지류인 오태강에서 나무하던 소녀를 만나 자신의 처지를 알려주고는 ‘산유화山有花’란 노래를 부른 뒤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만다.

이러한 향랑의 삶 속에서 열녀의 면모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은 곧 선산 부사인 조구상과 선산의 유림들에 의해 왜곡되기 시작한다. 조구상은 자신의 치적을 강조하기 위해, 선산의 유림들은 쇠락하던 고장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서였다. 따라서 그녀는 개가 권유를 뿌리치고 죽었다는 이유로 열녀가 되었다.

저자는 이처럼 한 여성이 죽어야만 했었던 상황과, 더 나아가 그녀가 열녀로 칭송받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향랑의 죽음 이면에 담겨진 여성의 고달팠던 삶의 양상을 당시 사회에 확산되어 가던 가부장제의 맥락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

‘가부장제’는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널리 일컬어지는 용어의 하나이다. 특히 여성사 및 생활사에 대한 이해와 호적제의 개정이라는 사회적 쟁점이 결부되면서, 그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가부장제에 역사성을 부여하면서, 부계父系적 장자 위주의 가족제도, 친영親迎과 시집살이를 위주로 하는 혼인제도, 아들 중심의 상속제도, 모계母系를 배제해 나가는 친족제도 등 가부장제의 정착에 따른 현상들을 작품 곳곳에서 거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혼, 재혼, 계모, 외도, 가정폭력 등의 가정 내적 문제를 향랑의 죽음 및 ‘열녀화’의 문제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을 쓰기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고전문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三韓拾遺’에 나타난 金紹行의 三韓認識>, <19세기 漢文長篇小說 연구> 등의 논문이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조교수로 있다.

그 결과 이 책은 단순히 향량의 삶을 보여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조선 후기 열악해져만 가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당대의 가정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되살려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향량의 죽음이 한 여성의 죽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모순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한편 저자는 독자들이 이러한 점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픽션과 논픽션을 결합하는 글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책에 나온 향량과 선산에서의 사건은 논픽션에 근거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은 상상력에 따른 픽션이기도 하다. 그리고 저자의 말에 따른다면,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복잡한 현상을 즐거운 방법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의도와 관련된다. 즉 향량의 죽음에 얽힌 복잡한 사회적 현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게 읽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저자는 이미 이전 작품인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에서도 이러한 글쓰기를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증적 태도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각주와 참고문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책의 곳곳에는 여성들의 화장 풍습, 혼례의 절차, 부역의 배치, 기근에 따른 재난대처 방식, 관아의 모습 등이 담겨 있어 당대의 생활사가 입체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글쓰기는 독자에 대한 배려의 결과이다. 따라서 독자는 저자의 글쓰기에 몰입되어 향량의 일생을 좇다 보면, 당시 가족사의 모순과 서민가정의 생활문화를 바로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어렵게 느껴질 내용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저자의 공력이 느껴진다.

이는 저자인 정창권이 생활사와 관련된 작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가 문학을 전공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국문학, 특히 고전소설을 전공하면서 문학적 상상력

에 대한 토대를 닦아왔다. 아울러 조선 후기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지은 소설에 관심을 가졌던 것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저자는 《한국 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역사의 이면에 묻혀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주변인들에게 끈끈한 애정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과 허구의 결합 속에 향량과 같은 인물을 역사의 전면에 부활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으로 인해, 저자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독자에게 뜻밖의 숙제를 안겨주기도 한다. 독자는 저자의 주장과 역사적 사실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장화홍련전>이나 ‘봉산탈춤’과 같은 텍스트가 지닌 사실성에 대해, 아직 학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남아 있지만, 저자는 자신의 주장과 결부지어 사실처럼 풀어가고 있다. 이는 저자의 의도가 앞선 부분이라 하겠다. 한편 향량이 물에 몸을 던진 이후, 그녀가 조선 후기의 대표적 열녀로 인식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소략하게 다루고 있는 점도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향량에 대한 조구상의 기록 이후, 책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의 기간에 서울의 문인들이 향량에 대한 전傳과 한시漢詩를 집중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량이 열녀로 만들어지기까지 선산에서 벌어졌던 일들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보완된다면, 조선 후기 약 200여 년 간 향량이 열녀로서 그만큼 유명하게 되었던 저간의 사정을 보다 확연히 알 수 있게 되리라 본다.

물론 이러한 점들로 인해 《향량, 산유화로 지다》가 지닌 의미나 가치가 빛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평범했던 한 여성이 어떻게 열녀가 되었는지를 추적해 가면서, 그 배경이 되고 있는 17세기 서민층의 가족사를 오늘에 되살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미덕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독자라면, 꼭 읽어보아야 할 책임에는 이문의 여지가 없다. ■